

운외창천(雲外蒼天)의 자세로 양계산업 돌파구 찾아가도록!

오봉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오봉국(1925년생)

현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명예교수
(사)대한양계협회 고문/본지 초대 발행인

- 1949~1952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졸업
- 1953~1956 서울대학교 대학원 축산학과 석사
- 1955~1957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기금학과 석사
- 1965~1968 시드니대학교 대학원 동물유전학 박사
- 1983~1987 한국기금학회 회장
- 1983~1985 한국육종학회 회장
- 1982 국민훈장 석류장
- 1991 국민훈장 모란장

오 봉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본회의 전신인 한국가금협회 4대 회장이자 양계농가들이 최신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계인을 위한 정보지 ‘월간양계’를 발간한 초대 발행인이다. 한국 양계 역사를 만든 가금학의 대부, 오봉국 교수는 국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애정이 남달랐다. 양계에 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에 협회에서 ‘육추일지’를 제작한 것이 시초가 되어 1969년 11월 ‘월간양계’를 첫 발간으로 단 한 번의 결간 없이 발행되면서 이번 호로 50주년(통권 601호)를 맞이했다. 초대발행인으로 월간양계 제작에 힘쓰신 오봉국 명예교수의 그간 활동과 ‘월간양계’ 초기 제작 당시의 에피소드를 들어본다.

오봉국 명예교수님, 그간 활동과 현재 근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서울대학교 축산학과를 졸업하면서 학문의 길로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대학원에 진학해 가축육종학에 흥미를 갖게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타가축에 비해 세대 간격이 짧고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닭을 연구 소재로 사용하면서 석사학위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1957년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가금학 석사를 마치고 내 나라의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죠. 6.25 전쟁 직후 메마른 땅에 무엇보다 ‘식’이 중요했고 단 백질 근원인 닭과 계란 공급을 위해 우수한 원종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미네소타 대학에서 개량한 근교계통원종계 백색레그혼종, 뉴햄프셔종, 백색플리모스록종 등 3품종을 가금학과장과 지도교수의 특별한 배려와 미국 ICA 후원으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실험 목장으로 종란 1,300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연구가 성공하여 농가에 채란계를 보급하게 되었고 1991년 만 65세의 나이에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지난 40년간 대학에서 가금학을 연구하며 후학양성과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이후 협회 상임고문으로서 검정 위원장으로 자문역할을 해오다 몇 년 전부터는 업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후배님들과의 지속적인 모임 등 연결고리는 놓지 않고 있어 업계 소식에 대해 늘 관심 있게 듣고 있습니다.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월간양계’ 탄생 스토리도 궁금합니다.

‘월간양계’ 탄생에는 ‘육추일지’가 시초가 되었습니다. 대한양계협회의 전신인 한국가금



협회는 운영 경비를 보태기 위해 협회 사업으로 ‘육추일지’를 제작했었죠. 발간비용은 부화장과 동물약품, 사료회사로부터 광고찬조금(협찬금)을 받아 제작하고 육추일지는 부화장, 약품회사, 사료회사에 배부하고 병아리, 약품, 사료를 사가는 양계농가에게 무료로 배부하여 육추사업의 기술보급을 전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죠. 봄·가을 2회에 걸쳐 발행했고 광고 수입은 제

작비를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남아 협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양계업계에서는 한국부화협회와 한국가금협회의 두 단체가 있었습니다. 월간지를 통해 양계농가에게 최신정보와 기술을 전파하려는 필요성은 다 같이 느끼면서도 잡지를 발간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죠. 시초가 된 ‘육추일지’ 발간에서 배운 광고 찬조로 업체에 대하여는 광고찬조금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잡지를 주면 찬조업체에서는 자기 회사 물건을 사가는 양계농가에게 무료로 잡지를 배부하고, 결국 농가는 ‘월간양계’를 무료로 볼 수 있게 되고 보급도 빨리 될 것이라는 말에 광고업체가 될 만한 곳을 발 벗어 다녔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는 신정재 회장(당시 과학사료(주), 현 에스에프)이 나에게 제안해준 비법입니다. 우선 잡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로 3개월간 발간비용 200만원의 목표액을 모금하기로 했죠. 지금의 화폐가치로 2,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개인적 친분이 나 체면 때문에 광고를 수락해준 회사도 있었고 그 당시 협회 설립의 애착이 있었던 여러분의 협조가 합작되어 1969년 11월 ‘월간양계’가 탄생하게 되었죠. 협회로서 잡지 발간의 큰 스폰서는 동물약품업체와 사료업체였죠. 특히 광고주로 가장 청탁액수가 큰 ‘제일사료’에서 광고를 얻기 위해 밤차로 호남선 열차에 몸을 싣고 군산까지 방문한 일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강습회 예산에서 경기를 절약해 잡지 경비에 충당할 셈으로 최창희 교수, 오세정 교수, 이창구 박사, 박근식 박사와 함께 5~6명이 여관 큰방 하나를 얻어 합숙하고 여름 더위와 모기의 수난으로 밤잠 설치며 고달픈 지방 순회를 한 기억도 떠오릅니다. 초대 편집위원장에 한인규 교수가 선출되고, 원고료는 무료로 봉사하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형편에 따라 원고료조로 지불하기도 하고 집필을 청탁했었죠.

1969년 11월 드디어 ‘월간양계’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제호는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같이 근무하던 고 윤석봉 박사가 써주었습니다. 이때 편집과 인쇄 등 어려운 책임을 맡아 온 김영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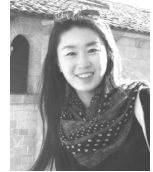
(초대 편집장, 전 제일사료 사장 겸 (주)하림 부회장)씨는 두 달간 집에도 못 가고 밤낮을 사무실 책상에서 침식해 가면서 편집부에서 인쇄, 교정, 광고 등 수고를 한 보람이 있어 창간호가 오랜 진통 끝에 탄생했었죠.

‘월간양계 창간 50주년’을 맞이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월간양계’를 보면 감개무량합니다. 이 잡지를 통해 국내 양계 사양가들이 최신정보와 기술을 습득했고 산업이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생 50돌을 맞으면서 잡지의 편집 내용이나 기사, 그리고 광고까지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낍니다. 지면도 200페이지 이상 늘어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되었죠. 창간인의 한 사람으로서 ‘월간양계’ 발간으로 양계농가는 물론 산업에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양계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만큼 향후 50년의 양계산업을 바라보며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잡지로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월간양계 창간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 월간양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구독신청

월간양계를 받아보세요

월간양계는 대한양계협회에서 1969년부터 매달 발행하는 회원지로서 사양관리, 전망, 종계검정실적, 양계사료실적, 양계산물수입실적, 해외기술정보, 협회사업 홍보 등 각종 정보를 회원 및 양계 관련 업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 | |
|-------------------|---|
| 1. 월간양계 증정 | 대 상 : 본회 회원과 일정액 이상의 협찬자
협찬금 : 연 70,000원 이상
담당자 : 홍보국 임설희 |
| 2. 광고협찬 | 광고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매월 15일까지 신청바랍니다.
(단, 광고 데이터 구비시 20일까지 가능) |
| 3. 결제계좌 | 농협중앙회 097-01-000953
예금주 : 대한양계협회 |
| 4. 전화번호 | 02-588-7651 |